

# 기업 ESG 경영활동이 기후위기 완화에 미치는 효과

박세환 기술법인 엔팜 전문위원

## 1. 머리말

현재 지구촌은 '무분별한 난개발→온실가스 증폭→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을 여럿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7<sup>1</sup>)를 통해 GMP(글로벌 메탄 서약, 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한 150개 이상 국가들에게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0.2℃ 이상 낮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ESG(Enviro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sup>2</sup>을 확대해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노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장바구니,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회용품 소재 친환경화, 저탄소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에코 지능(eco-intelligence) 지향 현명한 소비·생산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원고에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환경보호 활동, 국내 5개 금융협회의 ESG 금융 플랫폼(ESG-FH) 등 국내 이슈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1 2021.10.31~11.13,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한 4만여 명의 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 주요 결과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 선언,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 투명성 강조,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목표 도출, 2025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 합의, 국가감축목표(NDC) 공동 이행기간 도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방안 논의 등<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외교부 보도자료, 2021.11.14)>

2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전 세계적인 경영 패러다임이 재무제표 등 단기 재무적 가치로부터 비재무적 가치에 중심을 둔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 1>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동향

현대제철	- 독자적인 전기로 기반 철강 생산체제 구축 ▶ 2030년 수소 기반 철강 생산체제(하이 큐브)로 전환 목표 설정 - 새로운 개념의 전기로 생산 ▶ 철 원료 melting-불순물 제거-성분 추가
LG화학	-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Sustainability 전략 발표 ▶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공 - 기후변화 대응-재생에너지 전환-자원 선순환 활동 적극 추진 ▶ 배터리 분야에서 90% 이상 탄소중립, 바이오 친환경 합성수지 개발 등
포스코	- 한국전력공사와 수소-암모니아 사업협력 MOU 체결 ▶ 탄소배출 없는 그린 철강 생산에 주력 - 호주 자원개발 기업 헨콕(Hancock)과 공동으로 저탄소 HBI 생산 프로젝트 추진 ▶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 자료 : VIEWERS(2022.05.27), EBN(2021.05.17), MoneyS(2022.05.13) / 재구성

의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NFRD(비재무정보공개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입법 등 국제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ESG 경영활동과 기후위기 완화 이슈를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적 가치 소비활동을 확산하면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ESG 경영활동이 기후위기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친환경적 가치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ESG 경영·소비 촉진·금융투자자 보호 등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해 보인다.

## 2. 기업 ESG 경영활동과 기후위기 완화 이슈

### 2.1 국내 이슈

#### 2.1.1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이슈

현대제철·LG화학·포스코 등 제조 공정에서 화학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혁신적 환경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2][3][4].

#### 2.1.2 국내 금융권의 ESG 금융 이슈

2022년 2월 국내 5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는 공동으로 ESG 금융 플랫폼인 ESG-FH(ESG-Finance Hub)를 설립했다. ESG-FH는 5개 대분류(가이드라인·연구자료·ESG 소식·ESG 활동·플랫폼 소개)와 17개 소분류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국내·외 ESG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해외 자료의 경우, 제목과 요약정보에 대한 국문 번역문을 제공한다[5]. ESG-FH는 가이드라인, 연구자료 등 ESG 금융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금융회사 간 ESG 추진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ESG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ESG-FH는 지난 2022년 3월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sup>3</sup>의 후속 조치로 ESG-FH의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sup>4</sup>을 발행했다. 해당 핸드북은 녹색금융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운영사례, 관련 Q&A, 실무 해석사례, 용어 정리 등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관련 방향성을 정리한 실무지침서다[5][6][7]. 이처럼 ESG-FH는 ESG 금융

3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1.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2. 2020년 중 국내 녹색금융 논의 경과 및 성과, 3.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4. 향후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금융위원회 & 환경부, 2021.01.25>

4 녹색금융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운영사례, 관련 Q&A, 실무 해석사례, 용어정리 등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관련 방향성, 운영사례 등을 정리한 실무지침서 <금융권 녹색 금융 핸드북 최종본>이 나왔다.(IMPACITION, 2022.04.01)

<표 2> UN의 PRI, EU의 NFRD 핵심

UN의 P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협력으로 수립된 투자 원칙</li> <li>- 6대 원칙에 기반을 둔 모범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반영한다.</li> <li>② 적극적인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ESG 이슈를 반영한다.</li> <li>③ 투자 대상기업의 ESG 이슈가 적절히 공개되도록 노력한다.</li> <li>④ 투자 업계 내 책임투자원칙의 도입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li> <li>⑤ 책임투자원칙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li> <li>⑥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관한 활동 및 진전 사항을 보고한다.</li> </ul> </li> <li>- 매년 PRI 가입기관은 책임투자 방안, 정책 및 절차를 공개해 각 기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종 업계 대비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공식 PRI 등급을 부여함</li> </ul>
EU의 NF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10개 글로벌 비재무보고 표준 제정그룹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한 유럽의 비재무 보고지침</li> <li>- EU의 비재무보고 표준이 담긴 문서로서 54개 세부 제안 중 주요 10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재무보고 범위의 정의</li> <li>② EU 표준의 구조(총위)</li> <li>③ 과거 정보, 미래 정보 간 균형 유지</li> <li>④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li> <li>⑤ 연결 기반 통합보고</li> <li>⑥ 보고서 구조</li> <li>⑦ 시작부터 디지털화</li> <li>⑧ 타임라인 및 우선순위 영역</li> <li>⑨ 기존 표준 및 프레임워크와의 조정</li> <li>⑩ 중소기업 공시 기준</li> </ul> </li> </ul>

\* 자료 : Russell Investments(2021), IMPACTION(2021.05.28) / 재구성.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금융권의 ESG 경영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법안은 기업 ESG 경영 구현에 중요한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8][9].

## 2.2 국제사회 이슈

국제사회는 기업 ESG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요약하면 1)2006년 4월 UN, PRI 발표, 2)2014년 4월 EU, ESG 경영을 강화한 NFRD 입법 등이다. PRI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벤치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NFRD는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신뢰성·목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보고기준 사용을 의무화한 것

## 3. 맺음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제품 친환경화, 에코 지능적 소비·생산 활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격하는 친환경적 가치 소비<sup>5</sup>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가와 기업의 ESG 경영활동이 사회적 책임으로 주목받고 있다[10].

5 MZ세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격하는 소비를 의미한다(이산화탄소 저감 제품 구매,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김선태,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코지능”, 기후변화센터 이달의 이슈, 2022.08.1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적 가치 소비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장바구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에코 지능적인 현명한 소비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비활동과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PRI, NFRD 등 국제사회가 채택한 두 법안은 '구조화된 데이터 표준을 사용한 기업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가 차원 지속가능성장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ESG 경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ESG 정보생산 및 유통,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정보분류 체계

와 공시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7]. 아울러, 친환경적 가치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ESG 경영·소비 촉진·금융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해 이를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관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 비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해 친환경적 공시사항의 이행 및 디지털화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5개 금융협회의 ESG 금융 플랫폼인 ESG-FH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환경부 등 정부 부처·기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자문단 등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환경정보 공시 및 녹색채권 발행 등에 대한 가이드 제공, 전문 인재 양성 등에 주력한다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글로벌 메탄 감축 강화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에너지경제신문, 2022.12.22) <<https://m.ekn.kr/view.php?key=20221222010004877>>
- [2] 현대제철, 탄소중립 적극 나선다...2030년엔 수소 기반 철강 생산(VIEWERS, 2022.05.27) <<http://theviewers.co.kr/View.aspx?No=2399986>>
- [3] LG화학 "지속가능성이 핵심 경쟁력"...전세계 사업장 RE100 추(EBN, 2021.05.17) <<https://www.ebn.co.kr/news/view/1483842>>
- [4] 탄소 감축 나선 포스코·현대제철... 철강 생산에 수소·조개껍데기 쓴다(MoneyS, 2022.05.13)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51216135912870>>
- [5] 국내 금융사 공동 ESG 금융플랫폼 개설(Money S, 2022.02.2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2509298014665>>
- [6] 금융권 녹색 금융 핸드북' 최종본 나왔다(IMPACTION, 2022.04.01)
- [7] 중소·중견기업 ESG경영과 투자자 위해 ESG기본법 필요(news1뉴스, 2023.03.08) <<https://www.news1.kr/articles/4975261>>
- [8] 윤리경영(INTEGRITY) 2020년 UN PRI 평가 요약(Russell Investments, 2121) <<https://russellinvestments.com/-/media/files/kr/about-us/summary-of-pri-assessment-2020-kr.pdf?la=ko-kr>>
- [9] 유럽 비재무보고(NFRD) 개정안, 10가지 주요 방향(IMPACTION, 2021.05.28).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9>>
- [10] 김선태,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_에코지능", 기후변화센터 이달의 이슈, 2022.08.12. <<http://www.climatechangecenter.kr/boards/newsletter/view?&id=1840>>